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시반월 28 일 (2025 년 6 월 24 일)

토라 포선: 코라흐

주제: 위험을 감수하는 계시

민수기 16 장 30 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사 땅이 그 입을 열고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간다면, 그제야 너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이번 주 토라 묶은 모세와 코라흐 및 그를 따르는 무리 사이에 일어난 심각한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드라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코라흐와 그의 추종자들을 굳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징벌하셨어야 하는가 입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갔던 정탐꾼들에게 내렸던 것과 유사한 전염병으로도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말빔(Malbim)은 모세 자신이 이러한 질문을 미리 예견하고, 사람들이 묻기도 전에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코라흐와 그의 무리에게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킬 것이라 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민수기 16 장 28 절에서 “이 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내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여기서 모세는 코라흐에 대한 징벌이 자신의 권위나 형 아하론의 지위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하신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진정한 관심은 토라의 신성한 근본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민족적 믿음을 보존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서 토라의 신성한 근원이 코라흐와 그의 추종자들로 인하여 진리인 토라의 진정성에 갑자기 도전을 받는 핵심 사안으로 드러난 것일까를 살펴 분별 합니다. 그 이유는 코라흐가 여호와와 토라, 그 근원에 대해 색다른 의혹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토라의 진정성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지니게 된 주된 근거는 바로 시나이 산위에서의 계시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가르침인 시나이 산의 계시를 여호와 권능자 (엘로힘/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나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사적으로 숨겨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12 지파 이스라엘 민족 이삼백만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인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체험으로, 신명기 4 장 33 절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엘로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또 있느냐?” 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계시는 단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엘로힘으로부터 토라를 사적인 계시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면, 그것은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의 주장처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쉽게 반박 당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시나이 산에서의 계시는 유례를 찾을수 없는 공개적인 역사였습니다.

A Daily Bread

불과 연기, 번개, 천둥,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쇼파르의 소리, 그리고 정확한 여호와 엘로힘의 뜻이 드러났으며, 이를 온 백성이 함께 보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계시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오감각을 통하여 인지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토라의 모든 법과 규례가 여호와 엘로힘의 뜻을 드러내신 영원한 불변의 계시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 어떤 체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적 신뢰와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은 만일 그들이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신뢰가 그들 가운데 부재하였다면, 그 어느 방법들을 썼다 한들 한 온 민족이 이처럼 장엄하고 경이로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거짓으로 믿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자로는 육십만명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더하면 이삼백만명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먼 훗날까지 이르도록 그들의 자손자들에게 “우리는 권능자의 임재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나이산의 계시로써 각각 얻은 체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토라에 대한 신앙의 토대였으며, 모세는 오직 여호와와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중재자이셨다는 확증의 근거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한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와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할 토라의 계시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산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미래 모든 그 한 세대까지 여호와와의 토라와 그의 신성한 근원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라흐는 초반부터 이 민족적인 거룩한 신앙을 뒤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으로 모세가 임명한 제사장직과 레위인 직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모세가 엘로힘의 말씀을 왜곡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는 한 민족적으로 연합 된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도전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된 그의 진정성과 성막 봉사에 대한 문제를 넘어, 자신이 여호와 엘로힘의 선지자인지, 그리고 토라가 과연 창조주의 계시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셨습니다.

더욱이 코라흐는 시나이 산에서의 계시를 직접 목격했던 인물로서, 진리인 토라와 모세의 정당성에 대하여 산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모세가 여호와 엘로힘의 권위를 넘어 임의적으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집권하려 한다고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시나이 산의 위대한 진리들이 실제로 코라흐에게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여지가 있었던 것었는지를 살피며 과연 코라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었을까를 살펴 보도록 합니다. 이 질문에 성경에서 기록하신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모세와 그로부터 전하여진 토라가 영원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A Daily Bread

모반을 일으켰던 그들이 살아있었던 채로 스올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코라흐가 여호와와 종, 선지자 모세의 정당성에 도전하며 시나이 산에서 받은 토라의 영원성을 흔들고자 하였던 그들의 의혹을 없애는 강력한 증거이며 그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미혹에서 분별 할수 있도록 하는 역사였습니다.

시나이산의 십계명 계시에 있어서 기적이 필요했던 것과 같이, 산채로 땅 속의 불구덩이로 떨어진 또 하나의 명백한 기적을 이번주 묵인 민수기에서 기록합니다.

이 기적은 여호와 엘로힘 주신 신성한 토라에 기반한 모세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냉소적인 코라흐와 그의 무리가 등장한 그 때에, 그들의 반역이라는 위험까지도 감수하시며 드러내셔야 하셨던, 여호와 창조주의 영원하신 진리, 토라의 부인할수 없는 계시입니다

샬롬.